

로이드 카 박사, 노래의 노래, 강의 1

© 2024 로이드 카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일련의 4개 강의는 G. Lloyd Carr 박사가 진행합니다. Carr 박사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수십 년 동안 고든 칼리지의 성서 연구 부서를 가르치고 감독했습니다. 그는 DJ Wiseman이 편집한 Tyndall Old Testament Commentary Series에서 The Song of Solomon이라는 고전 주석을 썼습니다.

이것은 G. Lloyd Carr 박사의 아가에 관한 네 번의 강의 중 첫 번째 강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은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 일련의 책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전 연구를 통해 구약성서에 세 가지 기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토라(Torah)가 있고, 율법이 있고, 모세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이 있으며, 구약성서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의 시민 생활과 정치 생활을 다루는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토라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토라에 있는 율법의 효과가 확장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혜문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책들입니다. 시편, 잠언, 솔로몬의 노래, 전도서 같은 책들.

이 책들도 토라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실용적인 책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루시고 정부 구조를 정하시는 큰 문제들을 그다지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국가 생활, 정치, 군사 구조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백성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매우 일상적인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서구 세계에서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가까운 문학일 것입니다. 그것은 큰 질문을 다룹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나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다룬 모든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서가 다룬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지혜문학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의 초점은 그 큰 문제의 한 부분이며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몇 분 동안, 아마도 다음 몇 시간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책 자체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고, 이 버전의 책 제목은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쓰여진 노래 중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말하는 좋은 표현일 뿐입니다. 히브리어 관용어인 아가(Song of Songs)는 최상급이다. 그것은 최고입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까지 쓰여진 노래 중 가장 위대한 노래이며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오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책 자체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래일 수도 있고 종종 그것으로 식별됩니다. 그것의 라틴어 버전은 노래를 뜻하는 라틴어인 Canticles입니다.

그래서 찬가 중의 찬가입니다. 때로는 문헌에서 단순히 찬가로 식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최고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목은 일부 버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노래이고 음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음악에 적용되는 아이디어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꽤 최근에 오라토리오로 이 작품을 쓴 Calvin Seerveld 라는 토론토 학자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책 전체에 대한 몇 가지 음악을 썼고 그것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오라토리오로서 두세 번 수행되었습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가 이 특별한 노래의 가사를 부릅니다.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아니라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이제 솔로몬이라면 우리를 위해 꽤 단단히 고정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기원전 981년에 왕위에 올라 930년대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가 쓴 그의 책이라면 그것은 기원전 1세기 900년대 중반의 어느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부분적으로는 일부 어휘, 부분적으로는 책에 나오는 일부 신학 및 기타 사항을 근거로 그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솔로몬 시대인 900년대부터 기원전 1세기 또는 2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연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내려가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해사본 사람들인 쿨란의 발굴 현장에서 이 책의 일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기원전 2세기에 나온 것이므로 나중에는 올 수 없습니다. 그 날짜는 이 책들이 집필된 가장 빠른 날짜,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유배 이후 시기, 즉 유배 이후 어느 시점, 아마도 400년대 또는 심지어 300년대까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가장 좋은 날짜가 언제인지에 관해 학계 사이에는 실질적인 합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책의 통일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책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인 그림으로 구성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짧은

시들의 모음이거나,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통일체이므로 특정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아이디어는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일부 뿌리는 솔로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의 편집이나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 시대의 중간이나 포로 이후 시대로 내려갈 때의 본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입장은 이 책이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앞으로 100년 정도 후에 편집되었을 수도 있지만, 따라서 기원전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어딘가가 자료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적절한 연대입니다. 여기 이 작은 책인 솔로몬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라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솔로몬이 쓴 것입니까? 글썄요, 좋은 가능성이군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이를 허용합니다.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쓴 책이다. 그가 실제로 이 노래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일종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 황금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노래가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 그가 대왕이었다는 사실, 이때는 황금시대였고, 솔로몬은 잠언의 작가로 인정받았고, 노래의 작가였으며, 확실히 이런 종류의 일들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활동.

세 번째 대안 또는 세 번째 옵션은 이 노래를 솔로몬에게 헌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썼을 수도 있으며, 위대한 왕인 솔로몬이 이 노래를 솔로몬에게 헌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고대 이스라엘을 크게 사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그에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있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꽤 큰 하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일종의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돈 후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

책, 그리고 사랑이 분명 노래의 핵심 요소라면, 이것이 일련의 사랑 시이거나 단 하나의 사랑 시라면, 솔로몬은 그 주인공일 것이다. 그것을 바칠 분명한 사람.

결국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저자일 수도 있고, 아마도 솔로몬이 이 책을 헌정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아가서의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인 위대한 연인 솔로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그가 이 시의 작가였는지, 수신자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바친 사람.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책의 시작 부분, 첫 번째 장, 분명히 여기에 있는 제목에 나타납니다. 이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료에 있는 대부분의 제목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판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원래 제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가 책의 문맥에서 그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질문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1장 5절에는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어두워졌으나 예루살렘 딸들아 나아오라 계달의 장막 같으니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그녀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건물, 구조물, 커튼이 매우 아름답거나 아마도 그녀 자신처럼 어두울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아름다운 일종의 휘장이나 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이 특정한 사람이 성전이나 솔로몬의 궁전에서 알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이것이 매우 아름다운 커튼과 매우 아름다운 걸이라는 표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태피스트리 효과가 있는 어둡고 짜여진 행잉입니다. 해당 맥락에서 책의 저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제 3장에는 또 다른 일련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8장 11절과 12절에 이것이 책 끝 부분에 있고 또 말하는 여자의 설명이 있는데 11절에서 시작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바알의 포도원이 있었더라 -하만. 그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각 사람은 은 천 개에 그 열매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 포도원, 내 소유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여, 당신은 천 명을 소유하게 되고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이백 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와 함께 동산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급은 솔로몬이 이 책의 주인공 중 한 명임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금 거대한 포도원과 다른 소유물을 소유한 대지주이자 왕인 솔로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대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포도원은 아마도 그녀 자신의 몸, 그녀 자신의 육체적 존재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원하는대로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천칠백 명의 아내와 삼백 명의 첩이 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솔로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이것을 얻고 거기에서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대지주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된 다른 구절은 3장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6절부터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6시부터 11시까지의 짧은 이야기인데, 사막에서 나오는 행진,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온갖 향기로운 가루의 향긋한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것은 솔로몬의 가마이다.

그 주위에는 이스라엘 용사 육십 명이 있는데 다 칼을 차고 전쟁에 능숙하며 각기 칼을 허벅지에 차고 밤에 경보를 발하더라. 솔로몬 왕은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은 은으로, 등은 금으로, 자리는 자색으로 만들었느니라.

그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에 의해 사랑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오 시온의 딸들이 나가서 솔로몬 왕이 혼인날, 마음이 기뻐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운 면류관을 보라. 이제 그 작은 단위는 세 번째 장에서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여자가 애인을 찾고 올라가서 도시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를 찾는 검색 모티브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5절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을 키우거나 준비가 될 때까지 깨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결혼 행렬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노예들의 어깨에 짊어지는 수레인 큰 가마는 은빛 기둥과 금빛 등받이, 자색 의자 등이 모두 디자인되어 있고 내부도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결혼식 날 왕관을 들고 올라오는 가마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일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 중 한 명과 맺은 결혼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흥미로운 작은 구절이 있습니다. 글썬요, Kings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는 이집트의 어떤 공주도 외국 왕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록을 갖고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집트 공주와 솔로몬 왕의 결혼식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능한 제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올라오고,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행렬입니다. 시의 나머지 부분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의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은 그것이 여기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아마도 왕의 영광과 막대한 부와 광채, 권력, 그리고 그가 원하고 아마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여성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의 그림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8장의 구절과 비교하면,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소녀는 그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멋진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과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는 왕실 결혼식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뭐, 아마도 이 왕실의 결혼식과 관련된 책임 것 같아요.

그것은 수. 결혼식 축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 평론가들은 이 이야기나 이 시집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실제로는 일종의 문학 소설이며 솔로몬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위대한 왕, 위대한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름이 없으면 위대한 사랑의 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솔로몬의 이름을 여러 곳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은 밖에 있어요.

여기서 이름 사용에 대한 세 번째 옵션은 해석의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단순히 일종의 우화적 관점에서 식별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후손이 나라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다윗의 직계 후손인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궁극적인 발전, 국가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위대한 왕, 위대한 연인, 국가에 권력과 명성과 부를 가져오는 분인 솔로몬이 미래의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은 단지 일종의 우화에 불과합니다. 곧 다가올 더 크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힌트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솔로몬의 본성과 이 책이 그의 책인지에 대한 관점 또는 관점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몇 분 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확실히 솔로몬 시대의 것이며 솔로몬이 이 책을 헌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의 펜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책, 즉 솔로몬의 책을 볼 때 이 책에 있는 이러한 참고 자료가 그 책의 첫 번째 구절의 첫 번째 줄에 언급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노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약 4가지 표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다음 네 가지 중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미 언급한 우화라는 개념입니다.

우화는 고대 문학,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단어는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 중 하나는 말하다 또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철학자들이 특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아테네의 아고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단어의 마지막 절반이에요.

알레고리(allegory)라는 단어의 전반부는 '다른', '다른'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가 함께 있으면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화에서는 아이디어를 취하거나 문학 작품의 진술을 취하여 읽은 다음 '아, 그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음, 그것은 기원전 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록은 그리스 레기움(Regium)이라는 도시의 테오게네스 (Theogenes) 라는 사람이 남긴

것입니다. 기원전 520년경, 그는 그리스 문화 황금시대의 주요 철학자이자 대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오게네스 도 다른 많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종교문학의 일종인 문학, 특히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글과 조금 덜 알려진 헤시오도스의 글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금 더 일찍. 문제는 이러한 신들과 여신들의 이야기와 그리스 공동체의 행동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꽤 사랑이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이 강했고, 잔인했고, 조롱했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여러분이 대중의 좋은 역할 모델로 식별하고 싶은 종류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글썄요, 철학자들은 이 캐릭터들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이 문화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호머를 버리면 우리 전체 종교 문화의 기초를 잃게 되므로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우화합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호머와 다른 사람들의 저술을 검토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 메시지가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위대한 새로운 내용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신이나 여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학자로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법, 우화적 방법 및 우화는 기원전 500년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 방법과 연구 방법은 초기 그리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알렉산더 대왕은 300년대에 팔레스타인을 가로질러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그곳 알렉산드리아에 큰 대학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테네가 먼저,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교육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큰 학습 센터입니다.

그리스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년대부터 150년대, 160년대까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했습니다. 도시의 5분의 3, 4분의 5 중 3은 기원전 1세기에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았고, 알렉산드리아는 큰 학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성경 해설, 그런 것들.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종교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화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경전에 적용하기 시작한 곳은 알렉산드리아에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토라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통해 이 우화적인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와 유대 문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기원전 160년경 아리스토틔루스라는 사람과 함께 성서와 기타 종교 문헌의 우화화가 팔레스타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썄, 그것은 거기에서 다른 두 명의 주요 인물로 퍼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와 동시대 사람인 필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20년에 태어났으므로 예수님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는 서기 40년에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필로는 이 우화적 방법을 실제로 이해하고 자신이 작업하고 연구하고 있던 많은 성경 자료에 적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적용한 책 중 하나는 솔로몬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성경 자료의 해석에서 필로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서기 1세기 말까지 내려갈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랍비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위대한 랍비 중 한 사람은 선술집이나 선술집에서 솔로몬의 노래 가사를 부르는 사람은 내세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술집이나 술집에서 이 가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 특별한 랍비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해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것에 관한 많은 문헌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 동안 나의 향유인 나드가 향기를 풍겼습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가슴 사이에 있는 몰약 주머니 같으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헤나 꽃송이니라.

그녀는 엔게디의 꽃향기와 그곳의 포도원, 샘물과 그 곳의 아름다움으로 여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가슴 사이에 있는 몰약 주머니 같으니라.

이것을 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안고 싶어한다는 것이 매우 솔직한 말처럼 보이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을 우화화하기를 원했던 랍비들에게는 다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이해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쉘키나의 영광이요, 속죄소 곧 언약궤 뚜껑 위에 섰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니라.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그걸 가지고 갔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금천사 사이에 있는 구름기둥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화입니다. 그것은 꽤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우화와 우화적 방법의 아주 많고 많은 다른 예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비유는 본문에 대한 역사적 또는 문자적 이해를 거부하고 많은 경우에 본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자료와의 어떤 관련에서도 완전히, 완전히 제거되는 영적인 개념을 그 자리에 삽입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화는 기본적인 역사적 관점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나 해석 방법은 유형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유형은 성경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구약의 주석이나 진술 또는 역사적 사건이며, 거기에 신약의 관점이건 랍비의 사상이건 간에 일종의 해석적 추가가 있으며, 이를 반대 유형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예언의 성취이다. 몇 분 전에 저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아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어 황금시대를 가져온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인 솔로몬이 그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솔로몬의 생애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아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원래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유형이다.

예수님은 안티타입이십니다. 따라서 그 특정 구절에 대한 전형적인 해석은 예수가 그 원래 생각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아가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직접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에게 약간의 단서를 제공하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사랑 노래인 구약의 또 다른 구절 중 하나는 시편 45편입니다. 제목에서 사랑 노래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노래는 꽤 길게 이어집니다. 처음에 몇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좋은 주제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는 내 구절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내 혀는 준비된 서기관의 펜과 같습니다. 알았어, 소개.

첫 번째 스탠자. 당신은 사람의 아들들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당신의 입술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습니다. 오 전능하신 분, 당신의 영광과 위엄으로 당신의 허벅지에 칼을 차고 계십시오. 이제 우리는 시편 45편 6절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지속됩니다. 당신의 왕의 홀은 공평의 홀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네 동료들보다 더 부어 주셨느니라. 당신의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상아궁의 현악기가 당신을 즐겁게 합니다.

왕의 딸들은 명예로운 여인들 중에 속합니다. 당신의 오른쪽에는 금으로 만든 오빌의 여왕이 서 있습니다. 시편 45편의 중간 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단지 사랑 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첫 장,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홀은 주의 나라의 홀입니다.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 네 동료들보다 더 많은 기쁨의 기름을 네게 부으셨느니라.

시편 45편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 구절은 아들이신 예수께 적용됩니다.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 성취이신 솔로몬, 시편 45편에 나오는 다른 왕,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왕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타당한 입장입니다. 이제 그 원칙을 취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본문이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 곳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45편 9절은 당신의 귀부인들 가운데 왕들의 딸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오른편에는 금으로 만든 오빌의 여왕이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여왕으로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는 하렘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혀 여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특정 시점에 그가 눈여겨봤던 소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들려면 온갖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모형론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기록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성경 자체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화입니다. 한 가지 말을 하면 다른 뜻이 됩니다. 우화는 역사를 거부한다.

유형론은 역사적인 것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 의미, 즉 확장된 의미를 추가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흔하고 자주 행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이 책을 드라마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무대극, 아마도 공연되고 있던 일종의 제의 의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드라마라고 쓰여 있다는 생각은 꽤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 2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오리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것을 드라마로 식별했으며 따라서 이것은 종교 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일종의 전례나 의식 같은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드라마라는 생각이 좀 혼란스럽네요. 오리게네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라졌으며 우화적 유형론 방법이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에 독일의 위대한 구약학자 프란츠 델리치(Franz Delitzsch)라는 학자가 솔로몬의 노래를 드라마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솔로몬의 노래의 극적인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것을 가져와 오라토리오를 만든 토론토 학자 Calvin Seerfeld 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드라마는 전례나 의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종류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노래가 드라마라는 제안에는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실제 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을 그리며 돌아 다닙니다.

하고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좋은 드라마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물의 중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8개의 챕터를 돌며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야기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문학 이전에는 문학 형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입니다. 일부는 이집트에서 11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약간의

아이디어 조각이 있습니다. 대략 11세기에 등장한 호루스 드라마에 관한 흥미로운 작은 신화가 있습니다.

예배 및 전례와 관련된 메소포타미아 및 고대 근동 숭배 드라마가 일부 있지만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안이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학과 이집트 문학의 차이점은 둘 다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할당된 연설이 있고, 식별된 발연자가 있으며, 시퀀스에는 실제 무대 연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작품 중 하나에는 궁전에서 성전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이 시점에서 완료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설명할 것이고, 그런 다음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신화의 호루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무대 방향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의 화자는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 중 일부는 매우 분명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화자의 신원도 없고, 줄거리 자체도 없고, 무대 연출도 없다. 서술어인 것도 있지만 무대 연출의 패턴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나는 드라마 연출에 상당한 경험이 있고, 수년 동안 대학에서 드라마 프로그램을 연출했는데, 이것이 결코 좋은 연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등장하지만 가능성으로서 거의 거부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의 접근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을 위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를 단순히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으로 식별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읽으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상호 작용, 생각하는 것, 겪고 있는 것, 그들이 겪는 일을 묘사하는 사랑 노래, 사랑의 시인 것 같습니다. 하고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인간 관계, 즉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사랑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G. 로이드 카의 아가에 관한 네 번의 강의 중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